

# 이지우 연구 논문 『푸틴과 젤렌스키 전쟁 연설의 내러티브 연구』에 대하여

작성자 : 박유나

이지우 학우님의 푸틴과 젤렌스키 전쟁 연설의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논문은 서론에서 연구의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논문을 읽어감에 있어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의 배경과 푸틴과 젤렌스키라는 논문의 중심 대상이 되는 두 인물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한 매체를 접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자기방어’와 ‘구출’ 시나리오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론에서는 푸틴과 젤렌스키의 연설문 모두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주어 양측의 내러티브를 모두 접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남긴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992년도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입하여 재해석한 부분 역시 연구의 강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치외교학이나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은 저에게도 쉽게 읽힐 만큼 독자를 배려하는 친절한 글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연설문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시하고 은유가 나타난 단어를 강조해 주어 주장에 대한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론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 테이블에서도 독자의 이해도를 위한 학우님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교를 통해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잘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이 완결된 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논문의 전반적인 논리적 흐름이 잘 짜인 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지우 학우님의 논문에서 몇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는 은유, 프레임, 내러티브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해당 개념들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결론에서 내러티브의 최종적 수용에 관해 논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면 글의 신뢰성과 주장의 타당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의 연설문에 대한 정보가 푸틴의 연설문 선정 과정에 비해 적어 아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푸틴의 연설문에 대해서는 연설이 일어난 시기와 배경 그리고 선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연설에 대해서는 젤렌스키이 연설이 개념적 은유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러티브 분석이 가능하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연설문을 이용했는지, 이 시기에는 어떤 사건이 발발하였는지를 서술한다면 역

사적 맥락 하에 내러티브 연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먼저 목차페이지나 목차란이 없기에 글의 논리적 흐름을 복기 하고 싶을 때 전체 텍스트를 전부 살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추가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결론에 있는 푸틴과 젤렌스키의 내러티브를 비교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젤렌스키의 내러티브를 푸틴과 비교하여 각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밝히 고자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의 비교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아니라 본문에서 양방향적 상쇄 전략이나 모순 폭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식에 있어서 은유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기에 분명한 제목을 위하여 단어 ‘은유’를 제목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